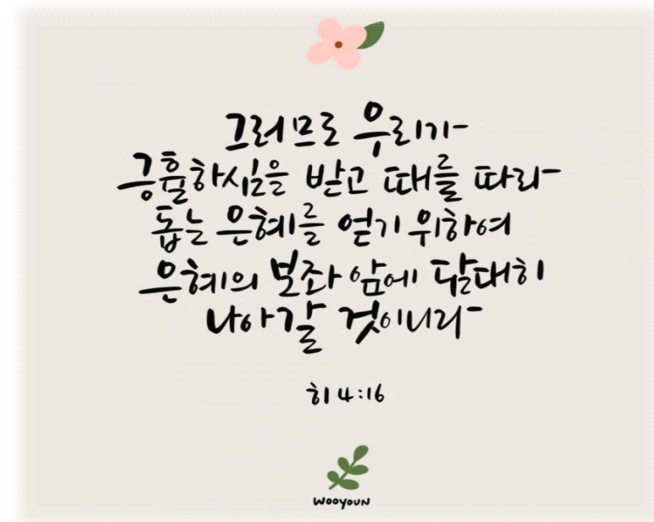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득남: 강은총(3/21) 방문: 김미숙(재은)
2. 사무엘상 성경공부 - 친교 후 본당
3.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기간이 되도록 힘써시다.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80
감사 헌금	CD \$30
십일조 헌금	CD \$60
장년 출석	12명
어린이 출석	14명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엡 3:14-21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자라나라! 쑥쑥!!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히 10:19-25	다함께
설교	새롭고 산 길!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도		김승용목사

(어린이교회) 에베소서 3:14-21

- 14 이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0:19-25

-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이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시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유대교에서 추방당함으로 유대교의 성전제사에서 단절된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성전제사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유대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구약의 제사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원모습은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며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커튼)을 두고 그 사이를 막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속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에 나의 거룩하지 못한 댓가를 다른 동물의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갈 때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대제사장도 수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성전제사는 결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 결코 그 자체로 완전히 정결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피는 결코 완벽한 대속을 이루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그 거룩한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늘 반복해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은 성전의 제사를 완벽하고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어린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한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히브리서는 새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다니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이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함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길 앞에서 서서 머뭇머뭇거리며 이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않습니까?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없다면 그 새롭고 산 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칠 때에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머뭇거리 지렁이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바침으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내 모습 그대로

D(add2) Gmaj7 A7 Gm/D D
 내모습 그대로 - 사랑 하 시네 연약함 그대로 - 사랑 하 시네 - 나의
 D/F# G(add2) Gm 1. D/A A7
 모든발- 걸음- 주가 아시- 나니- 날인 도하-소서 - 내 모습
 2. D/A A G(add2) D/F#
 날인 도하-소서 -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 주의
 G(add2) Am D7 G A/G
 임 재- 안에 거하-는 것 - - -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F#m Bm7 Em7 E7/G# Asus4 A7
 가장 큰- 은혜 - 주와함께동 행하-는 일 - 주의
 G(add2) D/F# G(add2) Am D7
 날개- 아래 거하-는 것 - 주의 임 재- 안에 거하-는 것 - - - 나의
 G A/G F#m Bm7 Em7 A7 D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함께동 행하-는 일 -

예수 피를 힘입어

E F#m7 G#m C#m A F#m Bsus B
 주의 보좌로 나아갈때에 어 떻게나 가야 할 까
 나 여전히 부족하 나
 E F#m7 G#m C#m A B E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것을 믿으며 가네 -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F#m7 G#m A C#m B A
 자적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로
 F#m7 G#m A C#m B F#
 자적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로
 F#m B A E/G# 3 F#m
 십자가의 보혈 -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Bsus B A E/G# 3 F#m B A
 - 십자가의 보혈 -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Matt Maher, Ed Cash

하늘 - 에 계신 아버 - 지 이름 거룩 - 하 며 -
 다 일용 할 양 - 식 은혜로 주 - 소 서 -

주의 영광이 곳에 가 - 득 하길 기도 하네 - 하늘
 예수 이름 으 - 로 우 - 리 모두 기도 하네 - 시험

- 에 계신 아버 - 지 주 이름 다 외 - 치 - 며 -
 - 에 들게 마시 - 고 악에서 구 원하 - 소 - 서 -

주의 영광 이 곳 에 가 - 득 하길 기도 하네 --- 기도 하네
 예수 이름 으 - 로 우 - 리 모두 기도 하네 ---

--- 찬양 해 - 새 노래 - 로 찬양 해 - 새 노래

- 로 찬양 해 - 새 노래 - 로 주 - 님께 - ---

주님의 나 라 주님의 뜻이 하늘 - 에 이뤄 - 지 - 듯

- 이 모두 선포 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 에 이뤄 - 지 - 리

- 라 - 날마 라 모든나

- 라 주께 - 모든 권 - 세 주께 - 모든 영 - 광 영원 - 히 아멘

- 모든나 - 라 주께 - 모든 권 - 세 주께 - 모든 영

- 광 영원 - 히 아멘 - 모든나 --- 주님의 나

주의 옷자락 만지며

Saul Morales 작사
 Saul Morales 작곡

주 발 앞 에 - 무릎 꿇고 - 그 사랑 에 - 나 안 기 네 -

어떤 말 도 - 그 어떤 소 리 - 도 그 발 앞 에서 - 잠 잠 해 지 네 -

주 나 의 사 - 랑 - 그 발 앞 에 - 앉 아 - - - -

내 모든 기 도 - 는 - 사 랑 의 노 래 가 되 네 -

주 의 옷 자 락 만 지 며 주 의 두 발 을 씻 기 며 - 주 님

- 그 발 에 입 맞 - 추 며 - 나 의 왕 관 을 놓 으 리 - 주 의

옷 자 락 만 지 며 - 주 의 두 발 을 씻 기 며 - 주 님

- 그 발 에 입 맞 - 추 며 - 나 의 왕 관 - 을 놓 으 리